

## 여·야 대권주자들 ‘5·18’ 광주 집결... 잠룡들 호남 민심잡기

이낙연·정세균·이재명 ‘빅3’에 박용진·양승조·이광재 참배  
 야권도 유승민·원희룡·안철수 등 5·18 전후 ‘광주행’ 예정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여·야 대권 주자들의 광주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잠룡’들의 호남 민심 잡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16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광주 일정을 소화한데 이어,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날 전남 동부권을 순회한 뒤 오는 18일 광주에 입성한다.

이 전 대표는 광주 일정 마지막날인 이날 민주당 광주시당에 가진 ‘광주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혁론으로 사실상의 대권 선언을 했다. 또 연초에 제기한 사면론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는 5·18 이후 7년의 기다림 끝에 직선제 개헌 등 정치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했다. 이제 우리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개혁에 나설 때가 됐다”며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위한 개혁을 국민 앞에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여권의 심장부에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이 전 대표는 광주 방문 기간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매일 묘비를 닦은 뒤 말바우시장과 아시아문화전당 ACT센터,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광주 트라우마센터 등을 잇따라 방문하며 민심잡기 행보를 했다.

전북지역 방문을 마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는 2박3일 일정으로 이날부터 광주·전남지역의 민생현장을 돌고 있다.

이날 여순사건 위령비를 참배하고, 제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위원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며 17일에는 순천 경전선 전철화사업 대상지를 방문하고 순천지역 시·도원과의 간담회도 갖는다.

18일에는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광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기업인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현안과 민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오는 17~18일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는다.

이 지사는 17일 전북에서 경기도·전북도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활성화 협약식을 갖고 종교계 인사 면담과 재래시장 방문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전북에서 1박한 이 지사는 18일 광주에서 5·18묘역을 참배하고 광주 5개 구청과의 기본소득 간담회 등도 갖는다.

대권도전을 선언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17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다. 5·18 묘역 참배에 앞서 박 의원은 광주 정치인연구소 발기인 대회에 참석하고 청년네트워크 주최 포럼에서 강연도 계획하고 있다.

최근 대권 도전을 선언한 양승조 충남지사도 17일 광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5·18 묘지를 참배하는 등 얼굴 알리기에 나선다.

대권도전 선언 초읽기에 돌입한 이광재 의원도 5·18묘지를 참배하고 언론과의 접촉을 할 예정이다.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인 유승민 전 의원이 1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에 이어 5·18 묘지도 참배한다.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야당 대표 몫으로 18일 5·18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에 참

석하고 동구 동명동에 있는 노천카페에서 대학생과 청년 취업준비생 등과 ‘노천카페미팅’을 갖는다.

국민의힘 잠룡 중 한 명이 원희룡 제주지사는 16일 5·18 묘지를 참배했다.

원 지사는 이날 5·18유족들과 만나 “암매장이나 헬기 기총 소사 등 5·18관련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진실이 밝혀져야 용서도 가능하고,

수습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권주자 중 한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16일 5·18묘지 참배실이 들었다. 하지만 뉴시스가 윤 전 총장과 전화통화한 결과 “광주를 방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윤사모’ 회원 30여명이 5·18 묘역을 참배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41년 전처럼’ 양동시장 노점상 주먹밥 재현 제41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5·18 41주기를 이틀 앞둔 16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먹밥’을 만들어 나누는 기념 행사를 열고 있다. 항쟁 당시 양동시장 노점상인들이 41년 전 시민군에게 건넸던 주먹밥을 만드는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

### ‘김치의 본고장 전남’ 국산김치 소비촉진 캠페인

전남도는 전국 첫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추진한 데 이어 국산김치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산김치 소비촉진 대책은 17일부터 7월15일까지 진행한다. 우선 전남도와 시·군, 농협, 외식업협회, 소비자단체 등 범도민이 함께하는 국산김치 소비촉진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어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이용 쿠폰

(5000원)을 지급하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지정업소 이용 인증 이벤트와 100% 국산원료 전남김치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음식점 전체가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을 받으면 ‘국산김치 안심밥상 거리’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장과 유명인사 등이 참여하는 국산김치 소비촉진 릴레이 챌린지도 함께 진행한다.

김정환기자

### ‘냉해 고리 끊기’ 나주시, 국산 신품종 배 육성·보급

국내 최대의 배 주산지인 전남 나주시가 기후변화로 매년 봄 개화기 때마다 되풀이되는 ‘배 저온피해’(냉해)에 적극 대응해 저온에 강한 국내육성 신품종 배 육성·보급에 나선다.

16일 나주시에 따르면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14일 나주 금천면 배 저온피해 농가를 찾은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개화기 착과 안정화 사업’ 추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강 시장은 “매년 이상기온 현상으로 착과불량 저온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농가 피해가 심각하다”며 “저온 날씨에 강한 국내육성 품종 보급 등 착과 안정 사업에 필요한 도비 5억원 지원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김 지사에게 건의했다.

김 지사는 “저온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한 철저한 피해 조사와 신속한 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매년 되풀이되는 저온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주시는 올해 10월부터 3년 간 저온피해 발생 과원에 대한 국내육성 품종 보급을 통한 수종 갱신과 적기 수분을 도와줄 돌배나무 등 자연수분수 공급 사업을 추진한다.

보급 예정인 저온에 강한 국내육성 배 품종은 신화·창조로 3년생 묘목 2만4000그루를 농가에 지원하는 게 목표이다.

기동취재본부

**곡성군**

#관내사찰 #제월섬  
 #섬진강기차마을장미정원 #섬진강무릉도원

#랜선곡성여행

제5회 곡성군 소셜미디어 사진공모전

PHOTOGRAPHY

2017 제2회 곡성군 소셜미디어 사진공모전 입선작 감정현-침실습지의 부드러운 아침물결

**공모기간**  
 21. 3. 15. 월 - 6. 30. 수

**발표일** 2021. 7. 16. (금)

**참여자격** 전국민 누구나

**시상인내** 18명 선정 / 총 상금 4,000,000원  
 작품 수준 미달시 아차상 취소 가능

**발표인내** 홈페이지 및 군 공식 블로그 게재 (개별 연락)  
[https://blog.naver.com/gokseong\\_love](https://blog.naver.com/gokseong_love)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1부  
 사진 원본파일(3MB 이상)  
 곡성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제출방법** 이메일과 우편접수  
 이메일 : sangyu100@korea.kr  
 우편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미래혁신과 스마트홍보팀